

# 군산항 특송장 이용 가능성 타진

### 중국 업체, 군산시·군산세관·군산해수청과 간담회 가져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최근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의 주재로 군산항 특송장 이용 가능성 타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계기관인 군산세관과 군산해수청, 석도국제해운 등이 참여하여 군산항 특송장의 운영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에 참석한 중국 특송업체는 석도 및 위해 등지에 소재한 물류기업으로 군산항 특송장 시설 등 관련 인프

라 시설 및 통관 여건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을 군산항으로 반입·통관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은 "군산항 특송장은 단일 통관이 가능하고 국내 물류허브인 대전·천안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물류비 절감과 배송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산항 특송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항 특송장은 지난 2월 1일에 임시 개장하여 중국에서 반입된 특송화물을 검사·통관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4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의료급여 어렵지 않아요”

### 군산시,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 순회 교육 실시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4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과는 다른 의료급여제도의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군산시는 적정 제도 이용을 유도하고자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군산시의 의료급여제도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등 총 1,6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급여관리사가 총 16회에 걸쳐 기본적인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제도 및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 안내, △상한 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현금급여(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지원 제도 △재개의료급여 사업 안내 등 의료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의 혈압·혈당 검사, 고혈압과 당뇨 유무 확인 등 기초 건강조사를 실시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황별 맞춤형 형식으로 전달한다. 그간 군산시는 매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시민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제도 교육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가 올바르게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순회 교육으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기자

## “군산시민문화회관 20년 사용허가 반대”

###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 발언서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9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14. 군산시 도시재생과장 임기는 6개월인가?'(시민문화회관 20년 사용허가를 반대한다!)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고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널리 알려진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재개관을 앞두고 도시재생사업 90억원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30억원 총 120억원을 투입한 공사가 완공 되었다며 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사업운영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 운영이라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주)커넥트군산이라는 한 개의 업체가 운영권을 수탁받았지만 (주)커넥트군산은 두 명이 공동대표였는데 군산에서 살고 있는 모 공동대표는 2023년 2월 돌연 사임을 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코스모40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현재 단독으로 대표직을 맡고 있어 공모가 확정되고 나서 작년 2월 군산지역에 거주하던 대표가 사임한 것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군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속칭 바지사장을 세운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 계획 및 사용허가 추진'의 건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20년 동안 장기 사용허가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도시재생과에서는 2021년 10월 15일 공모 당시 최대 20년이었고 공모에서 선정된 (주)커넥트군산과 2022년 8월 31일 체결한 우선협상 협약서에도 운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최대 20년으로 정해져서 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며 2022년 11월 제251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재생과 현안업무 보고회에서도 지적을 하였고 또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때도 지적했지만 네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최상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 다.'라고 답변한 과정은 2달 후 공로

연수에 들어가고 그 후로 6개월마다 새로운 과정이 의회 업무보고에 들어 오고 있다면서 답변을 한 과정은 6개월마다 바뀌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런 시대가 다른 시·군에 또 있을까라고 성토했다. 한경봉 의원은 20년 동안 장기 위탁을 하지 말고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재선정하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고서 실행하지 않는 군산시청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산시민문화회관은 토지 및 건물가액이 200억 정도이고 이번에 실시한 리모델링 금액이 120억원인데 그런 370억 가까운 자산을 그것도 한 업체에 앞으로 20년 동안 위탁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면서 '군산시민문화회관 사용허가'가 이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돌이킬 수가 없기에 당장 추가 공사를 중단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에서 결정된 민의를 행정에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백제 별밤 열차' 성황리 마무리

익산 백제 별밤 열차가 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호평 속에서 운영을 마쳤다. 익산시는 KTX와 시티투어, 익산 문화유산 여행을 연계한 백제 별밤 열차가 20~21일 양일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광객들의 관심으로 인기리에 조기 마감된 백제 별밤 열차는 20일 당일 코스와 20~21일 1박 2일 코스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아가페정원과 고스라울

방문해 익산 속 아름다운 정원관광을 즐기고 익산 문화유산 여행이 개최되는 왕궁리유적 일원에서 백제 왕궁 연회를 즐겼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익산 관광의 이해도를 높이는 스토리텔링 해설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공영주차타워 공휴일 주차대행 운영

익산시가 익산역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익산역 공영주차타워 공휴일 주차대행을 시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차타워에 진입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주차대행 요원이 번호표를 발급 주차한다. 기차 이용 후 번호표를 반납, 요금을 결제하면 차량을 인수받는다. 운영 시간은 익산역 이용객이 많은 공휴일(휴일, 금·토·일요일) 8시부터 24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주차요금과 별도로 1,000원이다. 익산역공영주차타워 주차대행으로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35대로 익산역 서편 역골주차장 40대, 송학주차장 15대를 포함하면 총 90여 대의 차량을 초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익산시는 주차대행을 통해 기차 시간이 급박한 이용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금마도서관 김호민 건축가 특강 진행

익산시 금마도서관이 5월 10일 오전 10시에 김호민 건축가를 초청해 '건축으로 행복을 짓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호민 건축가는 풀리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범한 민가를 통해 한국인의 집을 탐구하는 건축가이다. 현재 EBS 프로그램 '건축탐구집'에서 발표자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2024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으로 선정돼 활동하고 있다. 원공작으로는 부여의 기에는 공방, 강릉주택, 인천도시축전 주택공사 홍보관, 백석 메가박스, 사당동 도시형생활주택 SSH와 성북동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건축물들은 여러 출판물과 전시를 통해 국내·외로 소개되고 있다. 초청 강연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https://lib.iksan.gov.kr>)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금마도서관(063-859-76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전북시민대학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익산시는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전북시민대학' 프로그램 수강생 131명을 22일부터 모집한다. 전북시민대학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모하는 평생학습 사업으로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됐다. 사업은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와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며, 익산시 평생학습관 3개 강좌와 원광대학교 5개 강좌, 원광보건대학교 4개 강좌 등 총 12개 강좌로 운영한다. 익산시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Great 백제왕도 익산을 개설한다. 원광대학교에서는 △영화와 함께하는 생활의 인문학 △AI로 행복찾기 △몸과 마음 건강, 한방으로 관리하기 △그린 홈가드닝 클래스 △도시생활과 원예를 진행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척추와 팔다리 자세를 바르게 운동하자 △아름다운 손을 위한 뷰티 네일아트 △패션주얼리 제품 제작 △초등교과연계 보드게임 지도사양정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캠퍼스별 학습매니저를 채용해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을 실천,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신입생 모집, 학사관리, 학습이력, 경력관리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원광대학교 및 원광보건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진 지원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북시민대학 전화(063-859-515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장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